읽을 내용 (Article): 마음의 우상 (Heart Idolatry)

회개와 믿음은 크리스천 삶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하는 패턴임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과에서는 참된 회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누군가가 이 질문을 당신에게 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영적 훈련을 하라고 제안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성경읽기, 기도, 크리스천 친구들과의 교제, 죄의 회개, 또는 신학공부를 해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 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로 이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 놀랄 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 6:28-29).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표현 하자면, 크리스천의 삶이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성화(sanctification)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행위로 열심을 내는 자'(doers)들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음 해야 할 프로젝트, 다음의 목표, 다음 과제들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숙을 향한 우리의 추구는 지속되는 변화(lasting change)는 거의 없고, 많은 양의 분주한 일만을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반면, 너무 적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문제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죄의 내면에는 마음의 우상(heart idol)이 있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드려야 할 참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가짜 신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의역하자면, 모든 죄는 십계명 중 첫 계명("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계명이 가장 처음이고, 가장 높고, 최선(best) 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다른 모든 계명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 첫 계명, 즉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믿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자, 최고이다. 바로 거기서 다른 모든 사역(works)이 나오고(proceed), 존재하고(exist), 남고(remain), 지시되고 측정되는(be directed and measured)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근본이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루는 변화(gospel-driven transformation) 의 핵심은 우리의 '죄 속에 있는 더 근본적인 죄(sin beneath the sin)에 대해 회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과 불신앙이 눈에 보이는 죄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 Martin Luther, Treatise on Good Works, section 9, (1520)

사례연구를 통해 험담(gossip)이라는 죄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험담은 다른 사람 뒤에서 정죄하고 좋지 않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십을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것 대신에 도대체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걸까요?

가십을 통해 흔히 드러나는 마음의 우상들의 일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 **인정받기** (approval) 우상: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
- **통제하기** (control) 우상: 험담을 통해서 남들을 통제한다
- **평판얻기** (reputation) 우상: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들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
- **성공하기** (success) 우상: 남이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그 사람을 험담한다
- **안정감** (security) 우상: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의 불안감(insecurity)을 가려준다
- **쾌락** (pleasure) 우상: 남은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난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를 공격한다
- **지식** (knowledge) 우상: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는 듯 말하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관심받기** (recognition) 우상: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남들에 대해서 드러나게 얘기한다
- **존중받기** (respect) 우상: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모든 우상들은 가짜 복음을 홍보하는 가짜 구세주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인정, 통제, 평판, 성공, 안정감, 향락, 지식, 관심, 존중)은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만이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상들에게서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특유의 우상들을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신뢰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예를 들어, 독신으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 다면, 아마도 '누군가를 사귀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독신이라는 '지옥'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을 신뢰한다면, 재정적 안정이 나의 우상일 것입니다(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결코 부족함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질서와 체계를 좋아한다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는

것(control)이 나의 우상일 것입니다(왜냐하면 내가 담당하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성찰은 왜 복음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가를 알려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평생 회개하면서도 막상 그 죄들 속에 숨어있는 깊은 마음 속의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이미 첫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의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보다 그 우상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 나의 깊은 마음의 우상을 회개하고 (2) 나의 특정한 우상의 힘을 무력화 시킬 구체적인 복음의 약속으로 내 마음을 돌림으로(믿음으로)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차일더스(Dr. Steve Childers) 박사는, 믿음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관심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가를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특권들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즐기는 것을 필요로 한다(Faith involves learning how to set the affections of our mind and heart on Christ…. Faith requires a continual rehearsing and delighting in the many privileges that are now ours in Christ.)"*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십시오: (1)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들을 기뻐하는 것. 나는, 나의 우상 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계속 상기시켜야 합니다.

* Steven L. Childers, "True Spirituality: The Transforming Power of the Gospel," available at www.gca.cc.

험담에 대한 예로 돌아가 봅시다. 험담하게 만드는 나의 지배적인 우상이 존중이라고 합시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한 후에 다음 두 가지 믿음의 면에 대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존중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겸손해지셨기 때문입니다(빌립보서 2:5-11). 둘째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갈망할 필요가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approval)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5:17-2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가, 안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 받아야 하는 필요'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0:31*).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같은 실천사항은 추상적으로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죄의 패턴을 고려할 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시간을 내서 (1) 당신이 자주 짓는 드러나는 죄들을

파악하고, (2) 기도하면서 그 죄들 뒤에 어떤 마음의 우상들이 자리잡고 있나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 그 우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4) 그 우상의 힘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 구체적인 복음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이같은 죄에 대한 반응과 회개의 과정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시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한 어떤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를 명확히 보고 정직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중심의 삶(gospel-centered life)을 배워 나갈 때, 다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놓여 있는 계단이 아닙니다. 이 둘은 바로 길 자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